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4

2010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 12.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허 찬 국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부 연구 위원

< 차 례 >

요 약	i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성장률	3
2. 생산	4
3. 소비	5
4. 투자	6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7
6. 물가	9
7. 고용	10
8. 금융시장	11
9. 원/달러 환율	13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15
1. 대내외 여건	17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22
제 III 장 정책과제	31
1. 중장기 과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	33
2. 당면 거시정책과제	37
부 록	45

< 표 차례 >

<표 I-1> 경상수지	9
<표 II-1> IMF와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	18
<표 II-2> 해외 주요기관의 유가 전망	20
<표 II-3> 2010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21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22
<표 II-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25
<표 II-6> 2005~2010년 SOC 예산	26
<표 II-7> 미분양 주택 현황.....	26
<표 II-8>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전망	28
<표 II-9> 2009~2010년 국내경제전망.....	29
<표 III-1> 단기명목금리차 변동과 채권투자자금 간 교차상관계수	39
<표 III-2> 장기명목금리차 변동과 채권투자자금 간 교차상관계수.....	40

< 그림 차례 >

<그림 I-1> GDP증가율	3
<그림 I-2> 부문별 성장 기여도	3
<그림 I-3> 산업생산	4
<그림 I-4> 서비스업 활동	4
<그림 I-5> 소비재 판매액	5
<그림 I-6> 유형별 소비재 판매액	5
<그림 I-7> 설비투자	6
<그림 I-8> 유형별 설비	6
<그림 I-9> 건설투자	7
<그림 I-10> 발주자별 건설기성	7
<그림 I-11> 수출	8
<그림 I-12> 수입	8
<그림 I-13> 소비자·생산자 물가	10
<그림 I-14> 수입물가	10
<그림 I-15>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11
<그림 I-16> 산업별 취업자 증감	11
<그림 I-17> 국고채 및 회사채	12
<그림 I-18> CD 및 CP금리	12
<그림 I-19>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13
<그림 I-20> 외국인 순매수	13
<그림 I-21> 원화 환율	14
<그림 I-22> 對달러 환율	14
<그림 II-1> 최근 주요국 성장률 추이	17
<그림 II-2> 국제유가 추이	19
<그림 II-3> 2010년 분야별 예산 증가율(2009년 본예산 대비)	21
<그림 II-4> 실질GDP증가율(반기별)	23
<그림 II-5> 소비심리지수(향후 경기전망)	24
<그림 III-1>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	36
<그림 III-2>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투자수지 추이(2008. 1~2009. 10)	41
<그림 III-3> 내외금리차와 채권투자자금유입 추이(2007. 1~2009. 10)	42

I. 국내경제 동향

- GDP 증가율: 지난해 3/4분기 이후 4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0.9%) 증가
 - 전년동기비(%): -3.4(2008. 4Q) → -4.2(2009. 1Q) → -2.2(2Q) → 0.9(3Q)
 - 전기비(%) 증가세는 크게 확대: 0.1(2009. 1Q) → 2.6(2Q) → 3.1(3Q)

- 제조업 생산: 개선흐름 둔화
 -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7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
 - 하지만 전월비 증가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8월과 10월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회복세 조정: 2.1%(7월) → -1.6%(8월) → 6.0%(9월) → -4.1%(10월)

- 서비스업 생산: 개선추세 유지
 - 전년동월비 증가율, 4월 이후 플러스 지속

- 소비: 소비자 판매액 증가세 확대
 -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확대 추세, 전월비는 9~10월 2개월 연속 증가
 - 전년동월비(%): 1.8(7월) → 1.6(8월) → 6.6(9월) → 9.8(10월)
 -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
 - 승용차 판매(전년동월비%): 9.9(7월) → 19.4(8월) → 65.7(9월) → 36.1(10월)

- 설비투자: 회복세 부진
 - 설비투자 증가율 9월과 10월 각각 전년동월비 5.0%, 0.3%에 그침.
 - 기계류 투자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부진한 데 기인

- 건설투자: 6월 이후 감소추세
 - 하반기 들어 9월을 제외하고 감소세 지속
 -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증가세 둔화

- 수출: 빠른 회복세
 - 세계경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개선흐름 지속
 - 수출(전년동기비%): -20.8(2009. 2Q) → -17.4(3Q) → 3.4(10~11월)

-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 13.0(2009. 2Q) → 13.2(3Q) → 14.8(10~11월)

■ 수입: 회복세 확대

- 환율 하락, 유가 상승, 내수 반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35.8(2009. 2Q) → -31.0(3Q) → -6.8(10~11월)
 - 일평균 수입액(억 달러): 10.6(2009. 2Q) → 11.8(3Q) → 13.1(10~11월)

■ 경상수지: 1~10월 중 370억 달러 흑자

-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와 서비스수지 개선에 기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세 지속

- 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물가안정세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2(8월) → 2.2(9월) → 2.0(10월) → 2.4(11월)

■ 고용: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소폭 개선

- 취업자 증감, 3개월 연속 플러스
 - 취업자 증감(천 명): -75(7월) → 3(8월) → 71(9월) → 10(10월)

■ 시장금리: 상승세 약화

- 경기회복,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기준금리 동결 지속, 두바이 사태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세 약화

■ 원화가치, 3월 이후 강세로 전환

-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화자금 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강세 지속
 - 원/달러: 1,238(8월) → 1,219(9월) → 1,175(10월) → 1,164(11월)

Ⅱ.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2010년 세계경제, 과거 추세(2000~2008년)보다 낮은 약 3% 성장 전망
 - 현재의 회복기조가 지속되면서 2010년 세계경제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겠지만 성장속도는 과거 추세보다 낮은 약 3%대로 전망됨.
 - 확장적 거시정책의 종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확산, 두바이 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후유증 발생 등은 세계경제의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제유가, 완만한 상승세
 -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속도, 달러 약세기조의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오름세를 보일 전망
 - 국제유가(두바이유), 상반기 83달러, 하반기 90달러, 연간 86달러로 전망

-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2010년 예산증가율
 - 2010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291조8,000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284조5,000억 원) 대비 2.6% 증가 그리고 추경(301조1,000억 원) 대비 3.3% 감소
 - 2005~2009년 평균 예산증가율 7.9%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율

- 한은, 내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상
 -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 고려해 볼 때, 금리인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는 어려울 전망
 - 고용 및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함.
 -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감소, 환율 하락 등으로 실물회복 둔화 가능성
 - 부동산 가격 및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등 금융완화 기조의 폐단이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음.

- 이상의 대내외 여건을 기초로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GDPCH(중국성장률)	%	8.5	10.2
GDPJP(일본성장률)	%	-5.4	1.7
GDPUS(미국성장률)	%	-2.7	1.5
OIL\$DUBAI(두바이)	\$/bbl	62.0	86.0
RP(기준금리, 기말)	%	2.00	2.75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0.3%(2009년) → 4.2%(2010년)

- 세계경제 회복세,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2009년 하반기와 같은 강한 회복세는 점차 약화
 -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0~2008년 평균 성장률(4.1%, IMF 기준)을 하회
 - 거시경제 개선에 기여한 금리인하·재정확대 등 확장적 정책기조의 정상화로 성장속도 둔화

■ 민간소비: 0.4%(2009년) → 3.7%(2010년)

- 2010년 민간소비는 고용 및 임금 개선, 환율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가계부채 부담, 자동차 先구매 효과 소멸, 자산가격 상승세 조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보다는 낮은 증가율(3.7%)을 보일 전망

■ 설비투자: -10.8%(2009년) → 8.3%(2010년)

- 2010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개선, 지난 몇 년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 등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데다 금융위기 후유증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8%대 증가율에 그칠 전망

- 2009년 감소폭(-10.8%)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

- 건설투자: 2.8%(2009년) → 0.4%(2010년)
 - 2010년 민간건설 회복이 부진한 데다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건설 투자는 2009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2010년 SOC 예산은 2009년 대비 0.3% 증가된 24조8천억 원으로 2008년(19조 6천억 원) 대비 26.0% 증가한 2009년의 24조7천억 원과는 큰 차이

- 경상수지: 415억 달러 흑자(2009년) → 150억 달러 흑자(2010년)
 - 2010년에는 수입증가세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
 - 수출은 예년 수준을 하회하는 세계경제 성장세, 환율하락, 선진국 소비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10% 안팎의 증가율에 그치겠으나 수입은 경기회복,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빠른 약 19%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 2.8%(2009년) → 2.9%(2010년)
 -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소비자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디플레이 갭, 경기회복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수요 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음.
 - 원유를 포함한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상승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데다 환율하락에 의해 일부 상쇄

-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5.9%(2009년) → 6.5%(2010년)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인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또한 2010년에는 약 78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인수합병(M&A) 증가에 따른 회사채 발행물량 증가도 금리 상승요인

-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세 지속
 - 2010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2009년 및 2010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2	-3.2	3.7	0.3	5.2	3.2	4.2
(SA, 전기비%)		-1.2	4.8		0.4	2.8	
민간소비	0.9	-2.6	3.4	0.4	4.8	2.6	3.7
건설투자	-2.1	2.8	2.7	2.8	-1.2	1.9	0.4
설비투자	-2.0	-19.5	-1.6	-10.8	11.3	5.7	8.3
수출(재화+서비스)	5.7	-7.1	3.0	-2.1	7.6	5.7	6.6
수입(재화+서비스)	3.7	-15.9	-1.2	-8.7	15.3	13.7	14.5
소비자물가	4.6	3.4	2.2	2.8	2.6	3.2	2.9
생산자물가	8.5	1.5	-2.0	-0.3	1.9	2.6	2.3
경상수지(억 달러)	-64.1	217.5	197.0	414.5	87.9	61.7	149.5
상품수지(억 달러)	59.9	259.8	262.0	521.7	157.5	149.3	306.8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334.3	1,679.5	2,030.5	3,710.0	1,893.1	2,198.2	4,091.3
증가율%	14.3	-24.1	-4.3	-14.4	12.7	8.3	10.3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74.3	1,419.7	1,768.5	3,188.2	1,735.6	2,048.8	3,784.4
증가율%	21.8	-34.5	-16.1	-25.4	22.2	15.9	18.7
서비스 및 기타수지	-124.0	-42.2	-64.9	-107.2	-69.6	-87.7	-157.3
환율(원/달러, 평균)	1099.5	1352.0	1205.0	1278.5	1140.0	1105.0	1122.5
회사채수익률(3년, AA-)	7.1	6.1	5.7	5.9	6.3	6.7	6.5
실업률(%)	3.2	3.8	3.5	3.7	3.6	3.4	3.5

Ⅲ. 정책과제

1. 중장기 과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

■ ‘단시간근로’ 형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 낮은 파트타임 고용비중은 고용률 저조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비중은 9.3%로 OECD 평균인 15.5%를 하회
 -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여성 비율은 73.0%로 OECD 국가 중 거의 최고 수준. 풀타임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단시간근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유연성 제고
 - 비정규직 사용 규제완화,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한 비정규직 수요 및 공급 창출
 -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

■ 군복무인력의 산업인력화

- 국가기간시설 관련 기술인력 양성
 - 개인의 취업기회 확대뿐 아니라 철도, 지하철, 항만운송과 같은 국가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하는 효과도 기대
- 복무기간 일부와 추가 교육기간을 통해 산업기술 인력 양산
 - 기업을 선발, 교육 등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
 - 범용기술을 넘어 IT, 항공 등 첨단 분야로까지 다양화, 전문화 과정 병행

■ 장기적 관점으로 강력한 직업훈련 시행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재정부담을 높이며 장기적 고용효과를 얻기는 어려움.

- 청년층에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 동일한 재정부담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
- 노동관련법 개정, 단견적인 정치적 타협 배격하고 원칙 고수 필요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글로벌 원칙
 - OECD 회원국 중 개인소득 하위국인 한국이 선진국들보다 더 노조를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전체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한 비용분담의 차원에서 도 대기업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받아들여야 함.
- 복수노조의 문제의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야만 노사문제가 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균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근로 및 후생조건에 대한 노조 간 입장조율은 가능

2. 당면 과제

- 기준금리인상은 국제자본유입 증가를 고려, 신중한 접근 필요
-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자본유입이 지속되면 원화절상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통화정책 결정이 가져올 대외균형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
- 내외금리차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두 변수 사이의 동조화가 관찰됨.
 - 이는 정책금리인상이 클수록 내외금리차가 확대되어 자금유입이 증가하고 결국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함.
- 즉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자본유입, 원화절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의 금리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 미국 실물경제 지표 개선이 지속될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내수 진작을 통한 환율 이슈화에 대비

- 무역흑자국으로서 환율정책이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야
 - 중국 위안화 절상이 이슈가 되는 시점에서 한국이 중국과 동일시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내수 진작 노력을 통해 수출 의존적 정책을 탈피하는 모습을 부각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성장률
2. 생산
3. 소비
4. 투자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6. 물가
7. 고용
8. 금융시장
9. 원/달러 환율

1. 성장률

■ 3/4분기 GDP 전년동기비 0.9% 증가, 지난해 3/4분기 이후 4분기 만에 플러스 증가세 회복

- 전년동기비(%): -3.4(2008. 4Q) → -4.2(2009. 1Q) → -2.2(2Q) → 0.9(3Q)

• 전기비(%) 증가세는 크게 확대: 0.1(2009. 1Q) → 2.6(2Q) → 3.1(3Q)

- 지출 측면에서는 정부소비와 건설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데다 민간소비와 재화수출도 증가로 전환

• 설비투자 감소세도 완화: -23.5%(2009. 1Q) → -15.9%(2Q) → -7.4%(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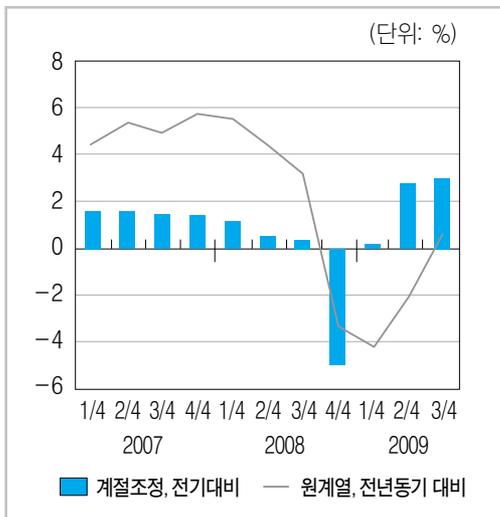
■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및 재고부문의 기여도가 반등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p): 4.1(2009. 1Q) → 5.3(2Q) → 5.4(3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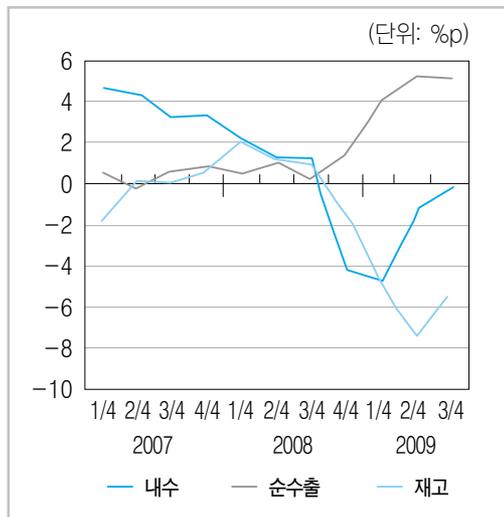
- 내수의 성장기여도(%p): -4.8(2009. 1Q) → -1.2(2Q) → 0.2(3Q)

- 재고의 성장기여도(%p): -4.9(2009. 1Q) → -7.4(2Q) → -5.4(3Q)

<그림 1-1> GDP증가율



<그림 1-2> 부문별 성장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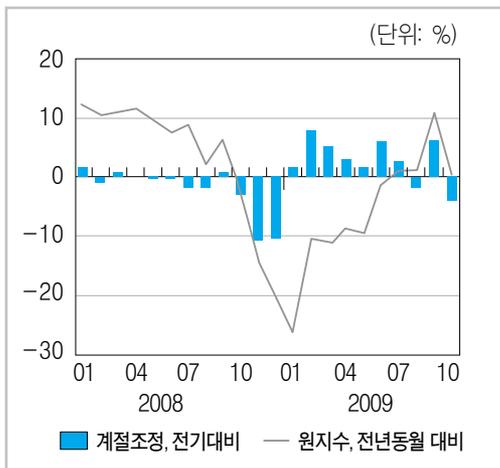
■제조업 생산: 개선흐름 둔화

-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7월 이후 4개월 연속 플러스 기록
 - 하지만 전월비 증가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8월과 10월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회복세가 조정을 받는 모습: 2.1%(7월) → -1.6%(8월) → 6.0%(9월) → -4.1%(10월)
- (업종별) 반도체 및 부품, 화학제품 등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영상통신기기 등의 부진으로 중화학공업 증가세 둔화. 경공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중화학공업(전년동기비%): -6.2(2Q) → 5.6(3Q) → 1.9(10월)
 - 경공업(전년동기비%): -8.8(2Q) → -1.8(3Q) → -7.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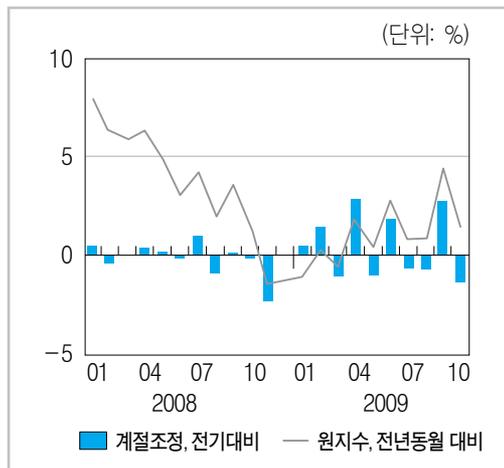
■서비스업 생산: 개선추세 유지

- 전년동월비 증가율 4월 이후 플러스 지속
-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복지,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숙박음식업, 교육, 운수업은 감소세 지속

<그림 1-3> 산업생산



<그림 1-4> 서비스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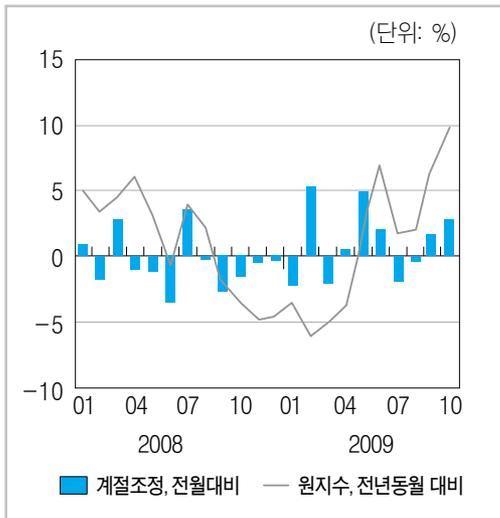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3.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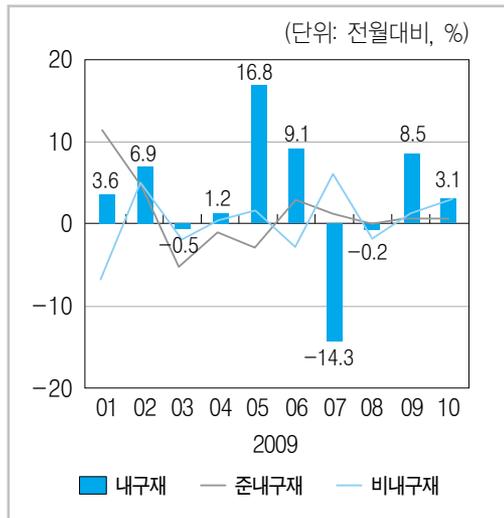
■ 소비재 판매액: 회복세 확대

-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확대추세, 전월비는 9, 10월 2개월 연속 증가
 - 전년동월비(%): 1.8(7월) → 1.6(8월) → 6.6(9월) → 9.8(10월)
 - 전월비(%): -1.7(7월) → -0.4(8월) → 1.7(9월) → 2.9(10월)
-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와 비내구재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
 - 내구재(전월비%): 0.1(7월) → 6.0(8월) → 26.1(9월) → 15.8(10월)
 - 승용차 판매(전월비%): 9.9(7월) → 19.4(8월) → 65.7(9월) → 36.1(10월)

〈그림 I -5〉 소비재 판매액



〈그림 I -6〉 유형별 소비재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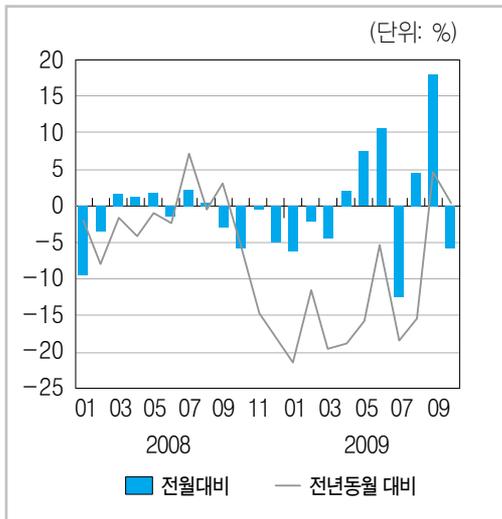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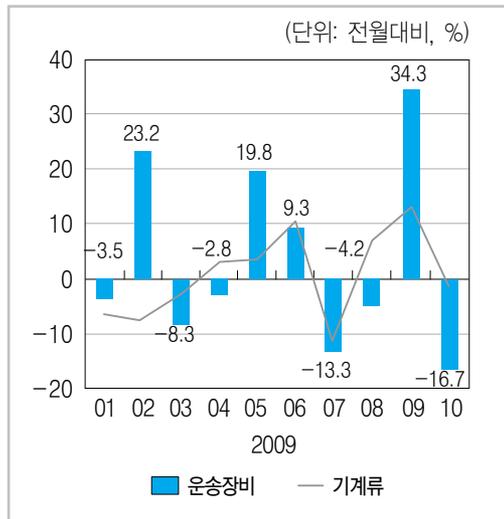
■ 설비투자: 회복세 부진

- 기계류 투자 감소세가 완화되었으나 운송장비 투자가 부진해지면서 9월과 10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전년동월비 5.0%, 0.3%에 그침.
 - 운송장비투자는 9월 54.4%에서 10월 0.4%로 큰 폭 둔화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플러스로 반전: -14.1%(2Q) → 6.5%(3Q) → 3.0%(10월)

<그림 1-7> 설비투자



<그림 1-8> 유형별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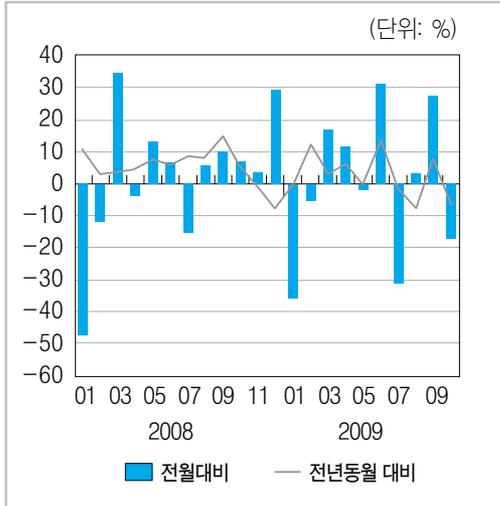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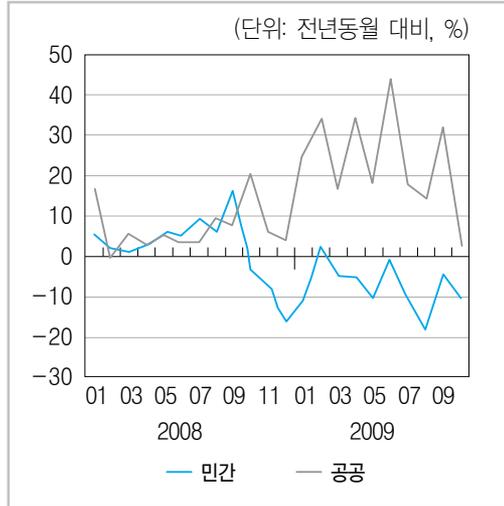
■ 건설투자: 6월 이후 감소추세

- 민간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증가세도 둔화
 - 하지만 건설수주는 공공부문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 -2.0%(2Q) → 9.1%(3Q) → 27.2%(10월)

<그림 I -9> 건설투자



<그림 I -10> 발주자별 건설기성



자료: 통계청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수출: 빠른 회복세

- 세계경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개선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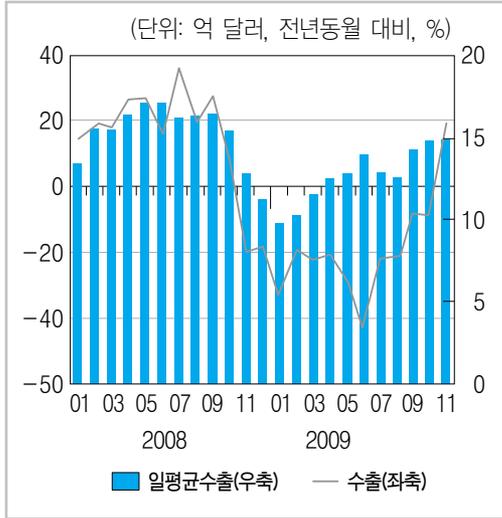
- 수출(전년동기비%): -20.8(2009. 2Q) → -17.4(3Q) → 3.4(10~11월)
-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3.0(2009. 2Q) → 13.2(3Q) → 14.8(10~11월)

■ 수입: 회복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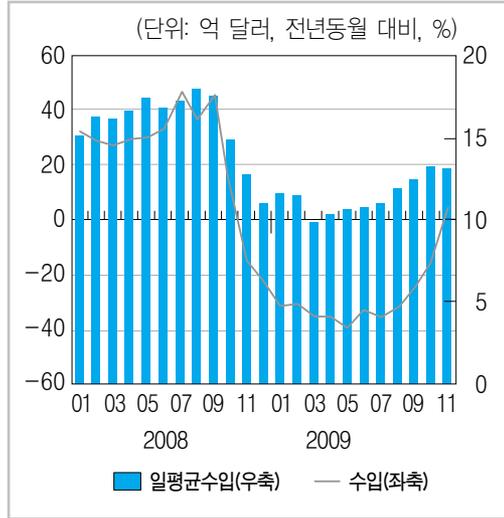
- 환율하락, 유가상승, 내수반등의 영향으로 회복세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35.8(2009. 2Q) → -31.0(3Q) → -6.8(10~11월)
- 일평균수입액(억 달러): 10.6(2009. 2Q) → 11.8(3Q) → 13.1(10~11월)

<그림 1-11> 수출



<그림 1-12> 수입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경상수지: 1~10월 중 370억 달러 흑자

-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와 서비스수지 개선에 기인

- 1~10월 중 상품수지는 464억 달러 흑자, 서비스수지는 126억 달러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28억 달러, 27억 달러 개선

〈표 1 - 1〉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10월
경상수지	-52.1	-1.3	-85.8	75.2	-64.1	85.8	131.7	103.0	370.0
상품수지	-12.2	57.2	-34.8	49.7	59.9	83.5	176.3	147.4	464.3
서비스수지	-50.7	-42.7	-56.9	-17.0	-167.3	-18.8	-40.2	-53.2	-123.5
여행수지	-30.2	-27.7	-29.7	7.1	-80.5	5.2	-10.7	-20.7	-28.6
사업서비스수지	-29.1	-29.0	-40.6	-46.4	-145.1	-32.3	-39.9	-37.5	-124.0
소득수지	16.9	-6.5	13.6	27.1	51.1	8.3	1.8	16.2	31.7
경상이전수지	-6.1	-9.4	-7.7	15.5	-7.7	12.8	-6.1	-7.3	-2.6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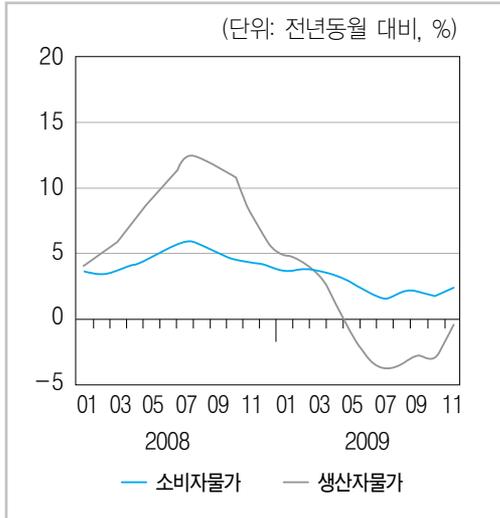
6.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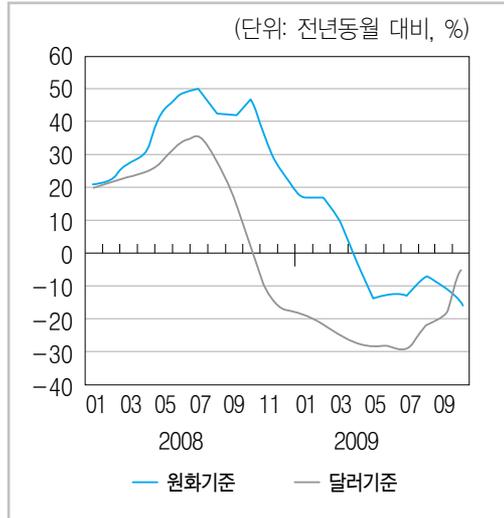
- 유가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물가안정세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2(8월) → 2.2(9월) → 2.0(10월) → 2.4(11월)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3.0(8월) → -2.6(9월) → -3.1(10월) → -0.4(11월)
- 수입물가(달러기준)는 7월을 저점으로 반등하고 있으나 원화기준 수입물가는 하향안정세 지속

<그림 1-13> 소비자·생산자 물가



<그림 1-14> 수입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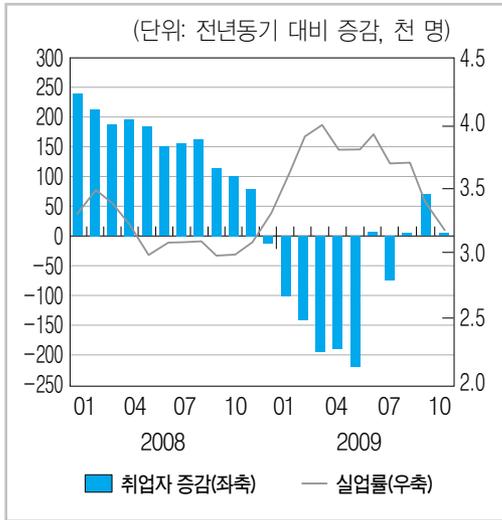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7. 고용

■ 고용: 추경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소폭 개선

- 취업자 증감, 3개월 연속 플러스
 - 취업자 증감(천 명): -75(7월) → 3(8월) → 71(9월) → 10(10월)
 -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부문만 큰 폭의 고용 증가, 나머지 부문은 감소 지속
- 이에 따라 실업률도 하락추세 지속
 - 실업률(%): 3.7(7월) → 3.7(8월) → 3.4(9월) → 3.2(10월)

<그림 I -15>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자료: 통계청

<그림 I -1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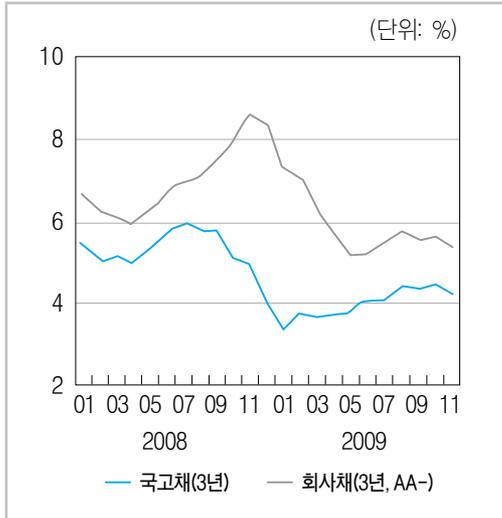
구 분	2009년			
	1/4	2/4	3/4	10월
전체 취업자	-146	-134	-1	10
농림어업	14	-25	-25	-29
제조업	-163	-151	-143	-87
건설업	-43	-113	-103	-147
도소매·음식숙박	-115	-136	-159	-17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36	341	454	437

8.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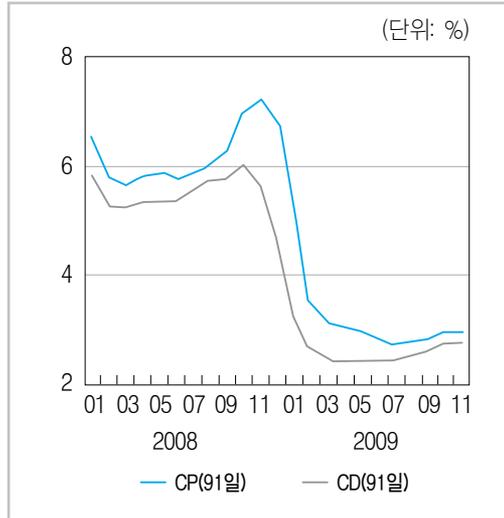
■ 시장금리: 상승세 약화

- 경기회복,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기준금리동결 기조 지속 전망, 두바이 사태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상승세 약화
 - 국고채(3년, %): 4.42(8월) → 4.40(9월) → 4.47(10월) → 4.32(11월)
 - 회사채(3년, AA-, %): 5.74(8월) → 5.58(9월) → 5.60(10월) → 5.43(11월)

<그림 I -17> 국고채 및 회사채



<그림 I -18> CD 및 CP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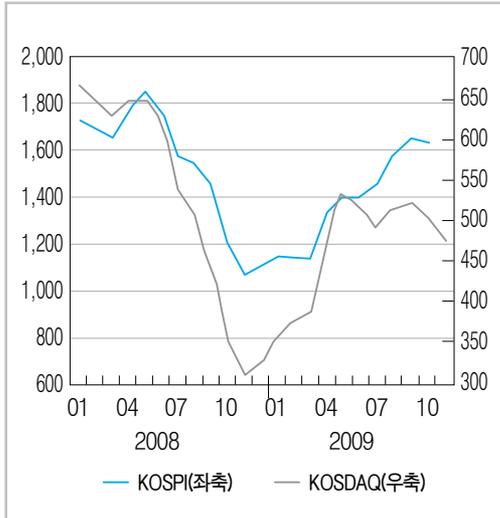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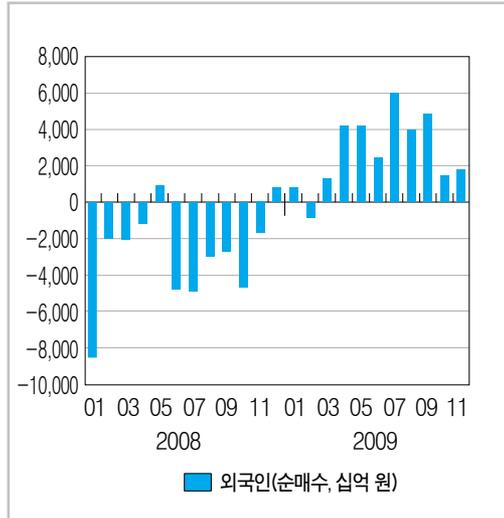
■주가 상승세 조정

- 두바이 사태에 따른 불안 등으로 11월 말경 주가는 1,500원대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불안심리가 완화되면서 12월 중 1,600원대 회복
- 올 들어 2월을 제외하고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지속

<그림 I -19>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그림 I -20> 외국인 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9. 원/달러 환율

■ 원화가치, 3월 이후 강세로 전환

- 글로벌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 확대, 외화자금 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

• 원/달러: 1,238(8월) → 1,219(9월) → 1,175(10월) → 1,164(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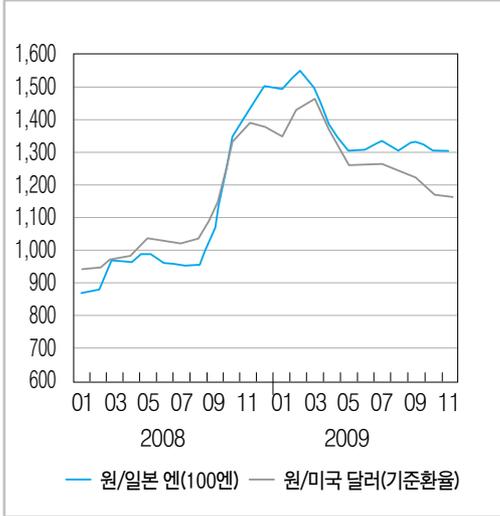
■ 원화가치, 주요 통화에 비해 절상속도 빠르지 않은 편

- 지난해 9월 리먼사태 이전에 비해 원화가치는 약 90% 수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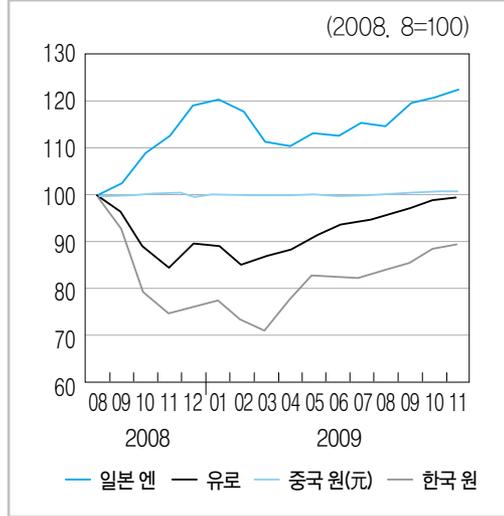
• 반면 엔화는 125% 수준, 유로화는 약 100% 수준 회복

→ 원화가치의 추가적 상승 여지

<그림 1-21> 원화 환율



<그림 1-22> 對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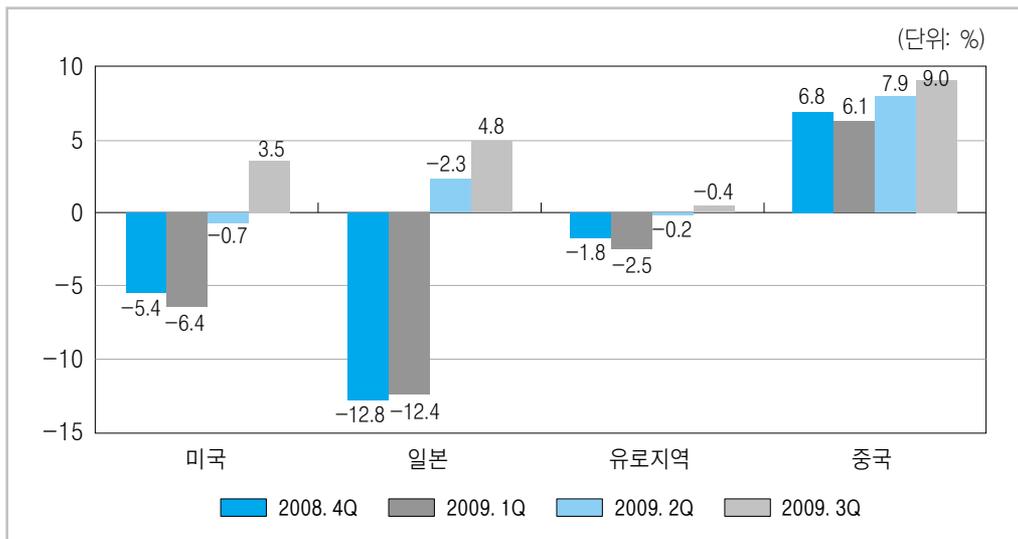
1. 대내외 여건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 2010년 세계경제, 과거추세(2000~2008년)보다 낮은 약 3% 성장 전망

- 적극적인 재정·금융 확대정책 효과 가시화되면서 회복국면 진입
 - 미국성장률(전기비 연율)은 2008년 2분기 1.5%를 기록한 이후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올 3분기에 다시 상승세
 - 유로지역도 3분기 플러스 성장률 기록(전기비 0.4%)
 - 일본은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률 기록
 - 중국경제도 내수 부양책의 효과로 3분기 약 8%대 성장세 회복

〈그림 II-1〉 최근 주요국 성장률 추이



주: 미국, 일본은 전기비 연율(%), 유로지역은 전기비(%), 중국은 전년동기비(%)

- 현재의 회복기조가 지속되면서 2010년 세계경제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겠으나 성장속도는 과거 추세보다 낮은 약 3%대로 전망됨.
 - 확장적 거시정책의 종료,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 특히 가계부채 조정과정에 있는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

분의 선진국들은 고용부진으로 인한 가계소비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 이를 반영하여 IMF와 OECD는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1%, 3.4%로 전망. 이는 2000~2008년 평균성장률(4.1%, IMF 기준)을 하회
- 더구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최근 두바이 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후유증 발생 등은 세계경제의 추가적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II -1〉 IMF와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8년 ²⁾	2009년		2010년	
		IMF	OECD ¹⁾	IMF	OECD ¹⁾
세 계	3.1	-1.1	-1.7	3.1	3.4
미 국	1.1	-2.7	-2.5	1.5	2.5
일 본	-0.7	-5.4	-5.3	1.7	1.8
유 로	0.8	-4.2	-4.0	0.3	0.9
중 국	9.0	8.5	8.3	9.0	10.2

주: 1) OECD 국가+BRICs 2) 2008년은 IMF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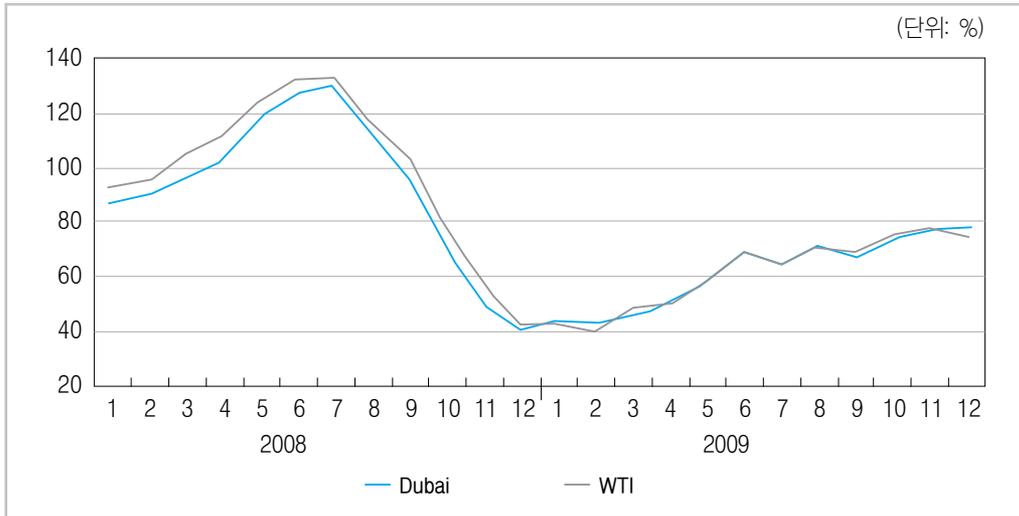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9.

■ 국제유가, 완만한 상승세

- 국제유가는 최근 경기침체 완화, 달러약세에 따른 실물투기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
- 두바이유 가격은 12월 9일 현재 76.6달러/배럴로 올 최저(40.10달러/배럴, 2/19) 대비 91% 상승

〈그림 II-2〉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2010년 국제유가는 상승기조가 지속되겠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속도 그리고 달러 약세기조의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제한적인 오름세를 보일 전망
-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해 석유수요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을 전망¹⁾
- 내년 미국 금리인상 등과 함께 달러 약세 기조가 완화되면서 달러표시 원유가격이 하락하고 원유투기수요도 약화될 듯
- 이를 반영할 경우, 2010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상반기 83달러, 하반기 90달러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연간 86달러가 될 전망

1)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12월 8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들의 미약한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 2010년 세계 석유 소비량을 종전의 하루 8,540만 배럴에서 하루 8,522만 배럴로 하향조정

〈표 II -2〉 해외 주요기관의 유가 전망

(단위: 달러/bbl)

구 분	유종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연간
CERA	Dubai	93.6	44.9	59.2	68.4	75.3	61.9	65.1
EIA	WTI	99.6	42.9	59.5	68.2	76.9	61.9	78.7

주: 1) CERA(미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의 전망시점은 2009. 11. 20.
 2) EIA(미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시점은 2009. 12. 8.

■ 한은, 내년 점진적인 금리인상

- 한은의 금리인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 전반적인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고용 및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진함.
 - 금리인상은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가치 상승을 가속화하고 부채급증 및 고용불안으로 취약한 가계부문의 구매력을 위축케 할 것임.
 - 또한 DTI 강화 등 부동산 대책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물가 상승률도 안정목표 내로 유지되는 등 금융완화 기조의 폐단이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

■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2010년 예산증가율

- 정부의 2010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291조8천억 원으로 2009년 본예산(284조5천억 원) 대비 2.6% 증가 그리고 추경(301조8천억 원) 대비 3.3% 감소
 - 2005~2009년 평균 예산증가율 7.9%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율

〈표 II -3〉 2010년 총지출 규모와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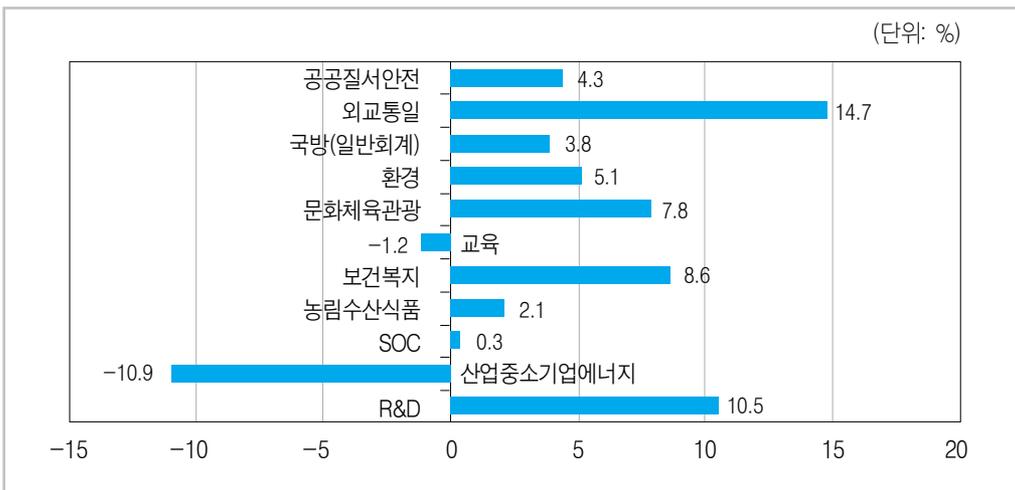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가율	
	본예산	추경	예산(안)	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총지출	284.5조 원	301.8조 원	291.8조 원	2.5%	-3.3%

자료: 기획재정부

- SOC예산은 24조8천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0.3% 증가
 - 이 중 4대강 사업예산은 3조5천억 원

〈그림 II -3〉 2010년 분야별 예산 증가율(2009년 본예산 대비)



■ 2010년 국내 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 이상의 대내외 여건을 기초로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주요국 성장률은 IMF 전망(2009년 10월)을 기초로 하였음.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유가전망기관보다 높은 86달러로 가정
 - 기준금리는 3/4분기 이후 0.25%p씩 3회 인상

〈표 II -4〉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GDPCH(중국성장률)	%	8.5	10.2
GDPJP(일본성장률)	%	-5.4	1.7
GDPUS(미국성장률)	%	-2.7	1.5
OIL\$DUBAI(두바이)	\$/bbl	62.0	86.0
RP(기준금리, 기말)	%	2.00	2.75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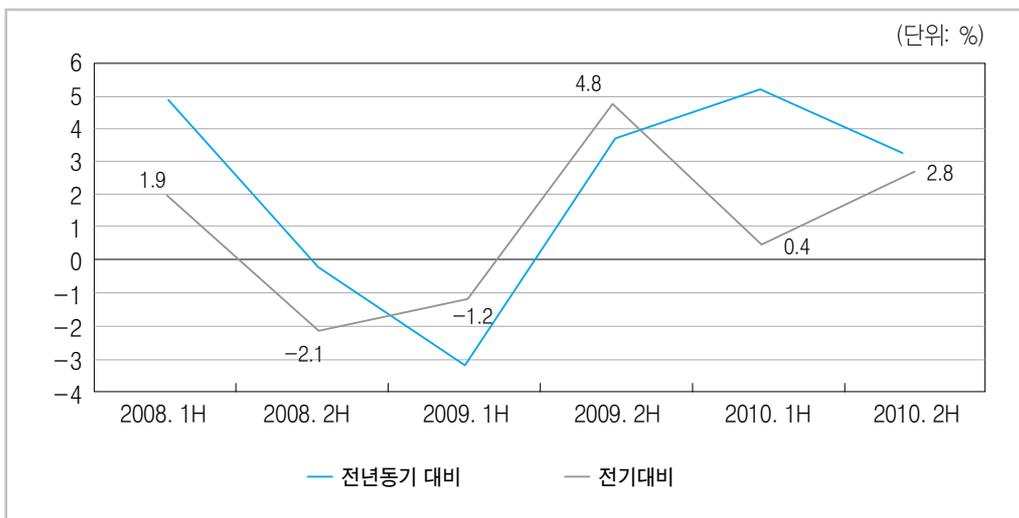
■ 경제성장률: 0.3%(2009년) → 4.2%(2010년)

- 세계경제 상황 호전, 확장적 재정정책,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빠르게 개선
 - 성장률(전기비): 0.1%(2009. 1Q) → 2.6%(2Q) → 3.1%(3Q)
- 하지만 2010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 성장기조가 이어지겠으나 현재와 같은 강한 회복세는 점차 약화될 전망
 - 2010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0~2008년 평균성장률(4.1%, IMF 기준)을 하회할 전망인데 세계경제가 1% 하락 시 우리 수출은 약 3.3% 하락. 또한 환율효과 소멸도 수출회복세에 제약요인
 - 거시경제 개선에 기여한 금리인하, 재정책대 등 확장적 정책기조가 정상화된다는

점도 성장 둔화요인

- 반기별로는 상반기(전기비 0.4%)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8%)가 높은 W자형²⁾의 회복국면이 예상됨. 연간 성장률은 4.2%로 전망됨.
- 전년동기비로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상고하저의 성장률이 예상됨.

<그림 II -4> 실질GDP증가율(반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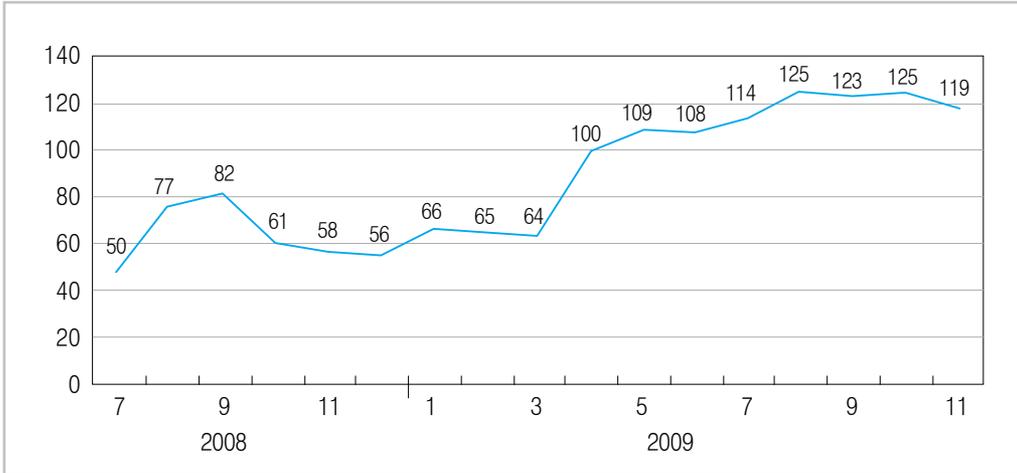


■ 민간소비: 0.4%(2009년) → 3.7%(2010년)

- 민간소비는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 주식 등 자산가격 회복 등으로 소비심리가 꾸준히 개선되면서 회복세
- 민간소비(전기비): 0.5%(2009. 1Q) → 3.6%(2Q) → 1.5%(3Q)

2) 더블딥 수준이 아닌 성장속도 조정에 해당

<그림 II -5> 소비심리지수(향후 경기전망)



- 2010년 민간소비는 고용 및 임금개선, 환율 하락 등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가계부채 부담, 자동차 선구매 효과 소멸, 자산가격 상승세 조정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보다는 낮은 증가율(3.7%)을 보일 전망

-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³⁾ 등으로 취업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고 삭감된 임금도 일부 정상화될 전망
- 가계대출은 올 9월 말 현재 약 676조 원으로 금리 상승 시 가계부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부동산 대책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식시장도 조정되는 양상이 될 전망

■ 설비투자: -10.8%(2009년) → 8.3%(2010년)

-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가 상승세를 반전되는 등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됨.

3)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 등을 통해 내년 연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올해(40만 명)보다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

-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비): -33.8%(2009. 1Q) → -14.1%(2Q) → 6.5%(3Q)
- 2010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회복, 환율하락,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 상승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규제완화, 녹색성장 지원 등에 따른 기업투자 증가
 - 환율하락으로 수입비용이 완화되는 점도 투자 증가 요인⁴⁾
 -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높아지고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최근 빠르게 상승

〈표 II -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p, 전년동기비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10월
설비투자조정압력(a-b)	5.1	2.8	0.3	-15.6	-18.9	-8.5	1.5	-1.7
a. 제조업생산증가율	11.1	9.3	5.6	-12.1	-16.4	-6.6	4.3	1.0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6.0	6.5	5.3	3.5	2.5	1.9	2.8	2.7
제조업 평균가동률(%)	80.8	80.4	78.3	69.3	65.8	73.7	78.9	77.3

자료: 통계청

- 하지만 2009년 감소율에 못 미치는 8%대의 증가율에 그칠 전망
 -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상승,⁵⁾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철폐, 두바이 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시장 후유증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기업투자 환경에 부정적 요인 상존
 - 또한 현금보유율이 크게 증가한 대기업과는 달리 구조조정, 대출회수 등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감소할 전망

4) 환율 하락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 수입품 가격하락은 즉각 반영됨에 따라 환율과 설비투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임.

5) 내년 약 100조 원대의 회사채 발행은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 건설투자: 2.8%(2009년) → 0.4%(2010년)

- 2009년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SOC부문에 대한 재정 확대 등의 효과로 토목건설 중심의 증가세 유지
 - 건물건설: -11.1%(2009 1Q) → -3.5%(2Q) → -0.4%(3Q)
 - 토목건설: 24.9%(2009 1Q) → 14.3%(2Q) → 7.7%(3Q)
- 2010년 민간건설 회복이 부진한 데다 공공부문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건설 투자는 2009년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2010년 SOC 예산은 2009년 대비 0.3% 증가된 24.8조 원으로 2008년(19조6천억 원) 대비 26.0% 증가한 2009년의 24조7천억 원과는 큰 차이

<표 II -6> 2005~2010년 SOC 예산

(단위: 조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SOC 예산	18.3	18.4	18.4	19.6	24.7	24.8
증가율		0.9	0.0	6.5	26.0	0.3

자료: 기획재정부

- 민간건설도 올해 종료된 양도세 감면,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중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도 부담요인

<표 II -7>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만 호)

구 분	2007. 12.	2008. 12.	2009. 7.	2009. 8.	2009. 9.	2009. 10.
계	112,254	165,599	140,186	133,779	126,424	120,437
수도권	14,624	26,928	24,010	23,362	20,962	19,848
지방	97,630	138,671	116,176	110,417	105,462	100,589
준공 후	17,395	46,476	51,775	48,358	47,649	48,519

자료: 국토해양부

■ 경상수지: 415억 달러 흑자(2009년) → 150억 달러 흑자(2010년)

- 2009년 1~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370억 달러
 - 올 경상수지는 1998년의 사상최대 흑자규모(404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 2010년에는 수입증가세 확대,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
 - 수출은 예년 수준을 하회하는 세계경제 성장세, 환율하락, 선진국 소비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약 10% 내외의 증가율에 그치겠으나 수입은 경기회복,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빠른 약 19%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서비스수지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및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
 - 소득수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의 영향으로 흑자가 유지되고 경상이전 수지는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에 대한 송금 증가, 일반정부의 경상이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추세를 보일 전망

■ 소비자물가: 2.8%(2009년) → 2.9%(2010년)

-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소비자물가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 디플레 갭, 향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원유를 포함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나 상승폭이 제한적일 전망이고 이 부분도 환율하락에 의해 일부 상쇄

■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5.9%(2009년) → 6.5%(2010년)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인상,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또한 2010년에는 약 78조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도래,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인수합병(M&A) 증가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상승요인

- 하지만 기준금리인상이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있고 경기회복세도 완만하여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 회사채와는 달리 국고채의 발행물량 축소는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우위 기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음.
- 내년 중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 경상수지 흑자는 내년 중에는 약 150억 달러 내외로 축소
 -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약세 기조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5월 이후 달러화가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II -8〉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환율전망

구 분	엔/달러			달러/유로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평균	89.73	89.18	93.92	1.5027	1.5100	1.4717
최 고	98.00	100.00	105.00	1.5500	1.6200	1.6000
최 저	85.00	80.00	85.00	1.4000	1.4400	1.3200

주: JP Morgan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11/25~11/30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II -9〉 2009~2010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연간	1Q	2Q	3Q	4Q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2	0.3	6.1	4.3	2.7	3.7	5.2	3.2	4.2
(SA, 전기비%)			-0.2	0.9	1.7	1.2	0.4	2.8	
민간소비	0.9	0.4	5.9	3.7	2.6	2.6	4.8	2.6	3.7
건설투자	-2.1	2.8	0.5	-2.5	1.1	2.5	-1.2	1.9	0.4
설비투자	-2.0	-10.8	12.8	10.0	6.4	5.0	11.3	5.7	8.3
수출(재화+서비스)	5.7	-2.1	8.1	7.2	5.9	5.5	7.6	5.7	6.6
수입(재화+서비스)	3.7	-8.7	14.4	16.2	16.4	11.2	15.3	13.7	14.5
소비자물가	4.7	2.8	2.5	2.8	3.1	3.3	2.6	3.2	2.9
생산자물가	8.5	-0.3	1.6	2.2	2.4	2.8	1.9	2.6	2.3
경상수지(억 달러)	-64.1	414.5	22.1	65.8	24.8	36.8	87.9	61.7	149.5
상품수지(억 달러)	59.9	521.7	42.6	114.9	80.8	68.6	157.5	149.3	306.8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334.3	3,710.0	887.1	1,006.0	1,085.1	1,113.1	1,893.1	2,198.2	4,091.3
증가율%	14.3	-14.4	20.1	15.3	12.0	8.2	12.7	8.3	10.3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74.3	3,188.2	844.5	891.2	1,004.3	1,044.5	1,735.6	2,048.8	3,784.4
증가율%	21.8	-25.4	30.1	28.4	11.2	6.1	22.2	15.9	18.7
서비스·소득·이전수지	-124.0	-107.2	-20.5	-49.1	-56.0	-31.7	-69.6	-87.7	-157.3
환율(원/달러, 평균)	1,099.5	1,278.5	1,150.0	1,130.0	1,110.0	1,100.0	1,140.0	1,105.0	1,122.5
회사채수익률(3yrs, AA-)	7.1	5.9	6.1	6.5	6.6	6.7	6.3	6.7	6.5
실업률(%)	3.2	3.7	3.7	3.5	3.4	3.3	3.6	3.4	3.5

제III장

정책과제

1. 중장기 과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
2. 당면 거시정책과제

1. 중장기 과제: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

■ '단시간근로' 형태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 OECD의 30개 회원국 평균 고용률⁶⁾은 66.5%로 우리나라의 63.8%를 상회함 (2008년 기준).
 - 우리나라보다 소득(2008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이 높은 22개국 중 고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3개국(그리스, 이탈리아, 벨기에)뿐임.
 -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G7국가들의 고용률은 70%를 상회
-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3.2%로 OECD 평균 57.5%를 크게 하회
 - 앞의 22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2개국(그리스, 이탈리아) 뿐임.
 - 대부분 G7국가들의 경우 여성 고용률은 60%를 상회
- 특히 우리나라는 고급 여성인력의 유희화가 심함.
 -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졸여성 고용률이 고졸 이하 여성 고용률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
-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여성의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73.0%로 OECD 국가 중 동구권 국가인 헝가리(91.2%), 폴란드(78.8%), 체코(78.6%) 및 슬로바키아(77.8%)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임.
 - 이는 우리나라 여성에게 풀타임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
- 우리나라의 파트타임⁷⁾ 고용비중은 9.3%로 OECD 평균 15.5%를 하회
 - 30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파트타임 비중이 낮은 나라는 5개국밖에 없으며, 이들 중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뿐임.

6) 15~64세 노동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

7) OECD 기준 파트타임은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로 우리나라의 종사지위별 구분(상용·임시·일용)이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과는 달리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 G7국가들 중 파트타임 비중의 최저값은 미국 12.2%임. 일본은 19.6%
 - 고용률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비정규직 사용 규제완화/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수요 및 공급 창출
 - 여성 고용률 및 파트타임 고용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단시간근로’ 형태를 활성화해야
 - 여성 경제활동참가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시간제약 완화, 다양한 근로계약 도입 등 공급요인 개선⁸⁾
 - 동시에 비정규직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정규직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 추가 고용 여력을 확보
 - 단시간 근로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용자인 기업과 성공적 제도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필수적
 - 기업의 입장에서 ‘단시간 근로’가 가능한 직종을 파악하는 등 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
 - 노조 역시 새로운 고용형태의 도입에 협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도입과정에 동참
 - 전체적인 과정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결정적으로 필요할 것임. 정부는 ‘단시간 근로’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증대가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들에게 제도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
- 군복무 인력의 기술교육 확대를 통한 산업인력화 방안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남성의 군복무가 의무화된 제도를 활용하여 복무기간을 산업전문인력 양성의 기회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

8) 지방 병원 간호사 공급 확대와 간호사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단시간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및 야간전담제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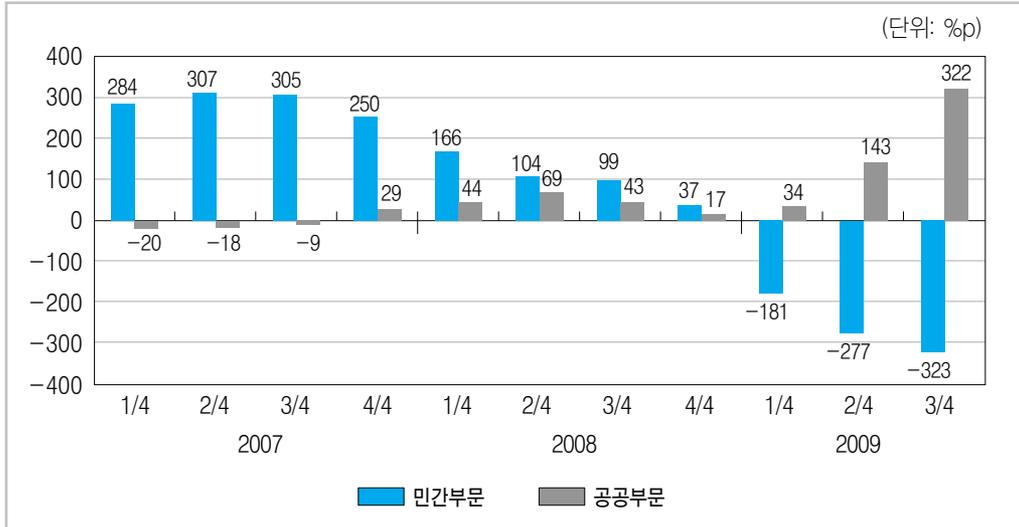
- 첫째, 국가기간시설 관련 기술인력 양성
 - 취업기회 확대로 연결되어 개인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
 - 현재 철도, 지하철, 항만운송과 같은 주요 국가시설이 파업으로 인해 마비되는 사태가 빈번. 이런 관행의 개선을 위해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한데 기간시설 운영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 필요 인력을 군복무인력 중 전문훈련을 통해 양성하여 마비사태에 대비

- 두 번째로 범용 및 첨단 기술인력 양산의 기회로 활용
 - 복무기간의 일부와 추가 교육기간을 통해 훈련기회를 제공
 - 교육·훈련 분야에 실수요자인 기업들이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하여 바로 실제 현장으로 연결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단순 기술을 넘어서 IT 관련 첨단 분야, 항공 및 고도장비 관련 관제 및 정비 등 다양화, 전문화

- 단기적 효과를 위한 한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갖는 강력한 직업훈련을 시행

- 현재 고용사정 개선은 그 효과가 한시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의한 결과
 - 2009년 1/4분기 저점 통과 이후 경기회복세가 감지되면서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 되는 모습이나 민간부문 고용은 지속적으로 악화
 - 이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결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급증한 결과

<그림 III-1>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



자료: 통계청 경제통계포털

-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한시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직업훈련에 투자해야
 - 대부분 청년인턴 일자리는 이미 종료되었고 재계약 내지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미흡한 사정인데 이는 청년인턴과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력축적 및 능력향상과는 무관한 단순 사무보조 등에 집중된 까닭
 -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재정부담만 높이며 장기적 고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청년층에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참여 청년층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동일한 재정부담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노동관련법 개정, 단견적인 정치적 타협 배격하고 원칙 고수 필요

- 최근 노동관련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나치게 단견적인 타협으로 원칙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향후 우리 노사문화와 고용률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앞서 살폈던 고용률 제고의 관건은 정규직 과잉보호 해소인데 이는 대기업 노조의 문제임. 이 분야의 변화가 고용률 제고를 위한 첫 단추
 -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글로벌 기준임. OECD 회원국 중 개인소득 하위국인 한국이 선진국들보다 더 노조를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 전체 고용사정의 개선을 위한 비용분담의 차원에서도 대기업 노조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받아들여야 함.
 - 정치적 활동이 주관심사인 노조원이 이윤과 소득이 최대 관심사인 기업과 사업체 노동조합에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유사 성향의 공적인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조가 아닌 정당 활동을 해야 할 것임.
- 기업이 생존하려면 경쟁적인 산출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 조건임. 노사문제만을 앞세워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는 시각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것임.
 - 따라서 복수노조의 문제도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야만 노사문제가 기업의 최대 현안으로 군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복수노조가 존재하더라도 피사용자들의 근로 및 후생조건이 최대 관심사인 노조들 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공공분야 및 대기업 고용관행의 개선은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상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전체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필요한 첫 단계가 원칙적 노사문화 정착임을 인정하고 근시안적인 문제 봉합에 연연하지 말아야 함.

2. 당면 거시정책과제

- 유동성 회수 계속되어야 하나 기준금리인상 등 금융정상화 정책 신중하게 접근해야
- 세계경제 안정세가 더 뚜렷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고용을 제외한 내수부문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임.

- 두바이 사태 후유증이 진정되고 있고 미국 주요 금융사들이 공적자금 상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세계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미국의 고용사정 개선, 4분기 성장호조 등 실물경제 안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세계금융 및 실물경제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
- 통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정상화 정책은 신중히 선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위기 대응으로 시행된 유동성 증가 요인들을 연내에 확실히 철회할 필요가 있으나 금리인상에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아직 물가가 지속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조짐이 없음.
 - 특히 최근 대표적인 자산 가격 버블 대상인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고 있어서 조급히 금리를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줄었음.

■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재정거래 목적의 자본유입증가세를 고려해야

-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민간내수가 본격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외거래 균형내지 흑자가 중요한 상태
- 이런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자본유입이 큰 규모로 지속되면 원화절상 압력이 빠르게 커질 수 있음.
 -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는 지금 시점에서 통화정책 결정이 가져올 대외균형 영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금리와 자본유입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⁹⁾
- 내외금리차(국내금리-외국금리) 확대는 국내 채권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고, 국내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소득 기회로 외국자금의 국내 유입을 초래함.
- 하지만 투자주체별 제약, 해외경제 사정 등 앞서의 단순한 이론적 예측의 실현을

9) 이 검토는 박찬호, 김아름의 「내외금리차와 환율의 관계분석」(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8년 2월호)에 바탕을 둔 것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 상존. 따라서 얼마나 실제 영향이 있는지는 자료검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함. 내외금리차와 채권투자와의 관계, 그리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III-1>은 국내외 단기금리차¹⁰⁾의 전월비 변동과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자금 간의 교차상관계수. <표 III-2>는 국내외 장기금리차¹¹⁾의 전월비 변동과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자금 간의 교차상관계수
- 첫 열은 표본 기간이고 +1, +2, +3은 당기의 채권투자자금과 다음 달, 두 달 후, 세 달 후의 금리차변동 간의 시차(lag)를 나타냄.

<표 III-1> 단기명목금리차 변동과 채권투자자금 간 교차상관계수

구 분	당월	+1월	+2월	+3월
2004. 1.~2007. 12.	0.52	0.59	0.42	0.37
~2008. 3.	0.40	0.49	0.56	0.36
~2008. 6.	0.41	0.47	0.52	0.34
~2008. 9.	0.44	0.35	0.56	0.35
~2008. 12.	-0.04	0.03	0.31	0.11
~2009. 3.	-0.03	0.09	0.42	0.38
~2009. 6.	-0.02	0.09	0.39	0.35
~2009. 9.	-0.02	0.09	0.39	0.35

- 내외금리차의 움직임과 외국인 채권투자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 발견
 - <표 III-1>은 2008년 이후 외국인채권투자와 2~3개월 이후의 단기금리차 변동 간의 상관계수가 높아 두 변수 사이의 동조화를 보여줌.
 - <표 III-2> 역시 2개월 시차간격을 두고 금리차 변동과 채권투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줌.

10) 한국 3개월 CD금리-3개월 달러LIBOR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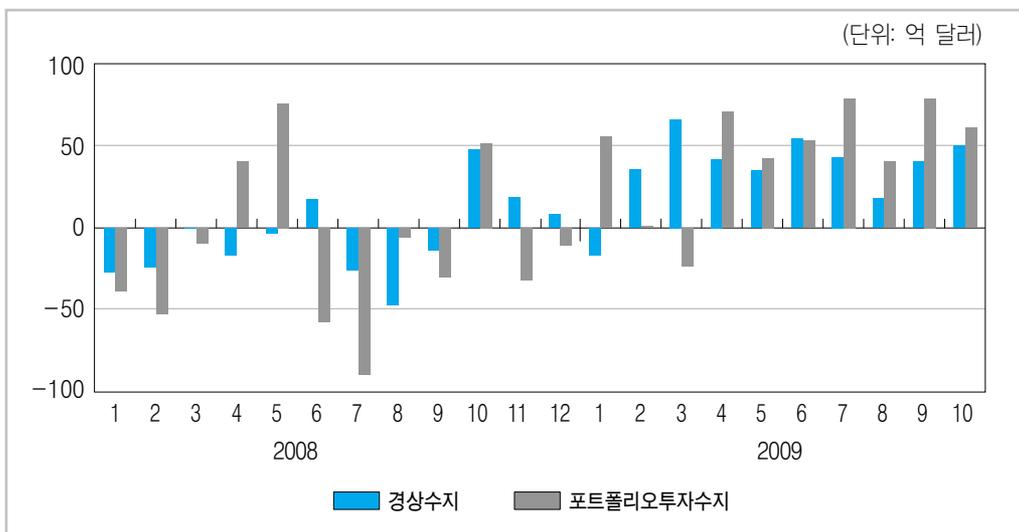
11) 한국 3년 국고채금리-미국 3년 국채금리

〈표 III-2〉 장기명목금리차 변동과 채권투자자금 간 교차상관계수

구 분	당월	+1월	+2월	+3월
2004. 1.~2007. 12.	0.53	0.47	0.41	0.36
~2008. 3.	0.46	0.43	0.45	0.40
~2008. 6.	0.37	0.44	0.45	0.33
~2008. 9.	0.16	0.32	0.35	0.26
~2008. 12.	0.21	0.28	0.37	0.26
~2009. 3.	0.18	0.31	0.42	0.38
~2009. 6.	0.18	0.30	0.41	0.39
~2009. 9.	0.18	0.31	0.42	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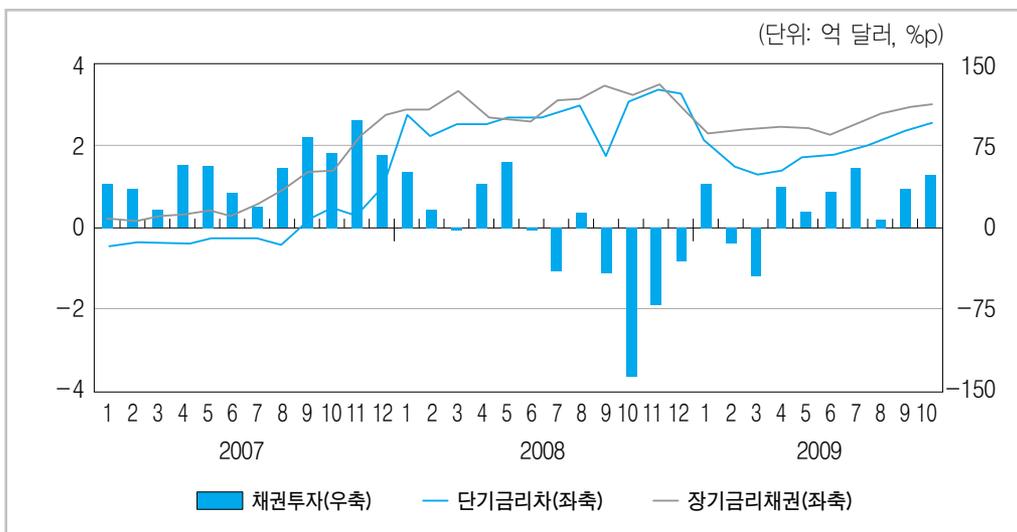
- 정책금리인상으로 국제자금유입이 증가할 경우, 원화절상과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우려
 - 2008년 하반기에 있었던 과도한 금융불안이 크게 진정된 상태에서 이런 자금 유입의 증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또한 외자유입 증가는 정책금리인상이 노리는 유동성 회수보다 더 많은 양의 유동성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림 III-2〉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투자수지 추이(2008. 1.~2009. 10.)



- <그림 III-2>는 포트폴리오 성격의 자금유입의 규모를 보여줌.
 - 지난 2년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월 유입규모는 경상수지 규모에 비해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음.
 - 즉 투자자금 유입이 경상수지 흑자규모 이상으로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 III-3> 내외금리차와 채권투자자금유입 추이(2007. 1.~2009. 10.)



- 내외금리차에 따른 채권투자자금 유입은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음.
 - <그림 III-3>은 내외금리차와 채권투자자금수지를 보여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하였으나 2009년 들어 2007년 추세에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최근 미국경제의 실물지표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도 몇 달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음.
 - 미국 금융시장 안정에 이어 고용 등 실물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임.
 - 아울러 일단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비교적 단기간에 증폭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도 약 1%p 정도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중폭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호주가 올해 들어 세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후 조정을 멈춘 패턴과 유사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계적 대외불균형 및 환율 이슈화에 대비할 필요

- 우리 경제도 대외무역 흑자국이어서 원화환율정책이 지나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야
 - 중국 위안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도 중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음.
 - 우리의 내수 진작 노력을 통해 외수 의존적 정책을 도모하고 있지 않음을 대외적으로 부각할 필요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4년	4.6	10.0	15,082	0.3	3.8	2.1	3.8	1.3
2005년	4.0	6.2	17,531	4.6	4.3	1.9	5.3	-0.4
2006년	5.2	8.1	19,722	4.7	6.6	3.4	8.2	0.5
2007년	5.1	7.2	21,695	5.1	5.4	4.2	9.3	1.4
2008년	2.2	3.1	19,231	0.9	4.2	-1.7	-2.0	-2.1
2004년	2/4	5.9	10.9	0.5	4.7	4.9	6.4	4.2
	3/4	4.8	12.9	0.3	3.9	3.1	7.7	1.2
	4/4	2.7	10.4	1.5	3.2	-1.4	1.8	-3.5
2005년	1/4	2.7	6.2	2.5	3.7	-0.3	3.4	-3.1
	2/4	3.4	4.8	4.7	4.7	1.8	2.8	0.9
	3/4	4.5	3.9	5.7	6.3	1.5	4.1	-0.3
	4/4	5.1	6.7	5.5	2.7	3.9	10.8	0.3
2006년	1/4	6.1	9.3	5.7	6.0	3.8	7.2	1.9
	2/4	5.1	9.4	4.5	6.7	0.1	8.0	-4.2
	3/4	5	9.1	4.3	6.0	4.0	12.0	-0.5
	4/4	4.6	8.7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5.4	4.9	5.9	7.3	12.6	4.4
	2/4	5.3	4.5	5.2	6.3	5.7	13.0	2.0
	3/4	4.9	7.2	5.4	4.8	1.5	4.0	-0.2
	4/4	5.7	6.3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10.2	4.0	3.6	-0.5	1.5	-1.9
	2/4	4.3	9.1	2.3	4.0	0.6	1.1	-0.3
	3/4	3.1	8.4	1.4	4.5	1.8	4.3	0.2
	4/4	-3.4	5.6	-3.7	4.7	-7.3	-14.0	-5.6
2009년	1/4	-4.2	-9.1	-4.4	7.3	-8.1	-23.5	1.6
	2/4	-2.2	-13.6	-0.8	7.1	-2.7	-15.9	3.7
	3/4	0.9	-7.3	0.8	5.0	-0.8	-7.4	2.7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26.8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6	14.4	3093.8	18.4	279.1	53.9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281.7	58.8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9.9	-64.1	2,012.2	1,257.5
2007년 7월	302.1	17.2	292.2	14.4	30.4	15.5	2,548.4	923.2
8월	310.0	13.6	296.4	9.7	29.1	5.7	2553.0	939.9
9월	293.2	-1.1	271.9	-1.6	37.3	23.0	2572.9	920.7
10월	344.3	22.9	327.4	27.8	36.4	24.6	2601.4	907.4
11월	358.1	17.0	339.3	26.8	26.4	15.1	2619.3	929.6
12월	330.3	14.8	339.0	23.2	4.4	-8.1	2622.2	938.2
2008년 1월	322.7	14.9	363.2	31.8	-11.0	-27.5	2618.7	943.9
2월	311.8	18.9	326.2	28.4	-6.0	-23.5	2623.6	937.3
3월	359.9	18.4	371.1	26.7	4.7	-1.1	2642.5	991.7
4월	378.5	26.4	382.6	29.3	16.3	-15.8	2604.8	999.7
5월	393.9	26.9	387.0	29.6	6.1	-3.8	2582.0	1031.4
6월	372.6	16.4	378.3	32.7	34.8	18.2	2581.0	1043.4
7월	409.6	35.6	429.5	47.0	2.2	-25.3	2475.2	1008.5
8월	366.1	18.1	404.2	36.4	-28.0	-47.0	2432.0	1081.8
9월	374.3	27.6	395.3	45.4	-8.9	-13.5	2396.7	1187.7
10월	371.1	7.8	361.0	10.3	26.3	47.5	2122.5	1291.4
11월	288.4	-19.5	288.5	-15.0	8.4	19.1	2005.1	1482.7
12월	271.2	-17.9	265.8	-21.6	15.0	8.6	2012.2	1257.5
2009년 1월	211.3	-34.5	249.3	-31.4	-17.4	-16.4	2017.4	1368.5
2월	254.0	-18.5	225.9	-30.8	31.1	35.6	2015.3	1516.4
3월	278.8	-22.5	239.0	-35.6	69.8	66.5	2063.4	1377.1
4월	303.3	-19.9	248.0	-35.2	61.3	42.5	2124.8	1348.0
5월	278.1	-29.4	233.3	-39.7	48.8	35.0	2267.7	1272.9
6월	212.3	-43.0	256.0	-32.3	66.1	54.3	2317.3	1284.7
7월	319.8	-21.9	276.4	-35.6	61.3	43.6	2375.1	1240.5
8월	289.4	-21.0	274.1	-32.2	33.3	19.1	2454.6	1244.9
9월	340.7	-9.0	297.5	-24.7	52.8	40.3	2542.5	1188.7
10월	339.6	-8.5	303.3	-16.0	57.2	49.4	2641.9	1200.6
11월	342.7	18.8	302.2	4.7			2708.9	1167.4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구 분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5)	2.8(2.6)	3.7	8.1	6.9	7.0	4.68	1073.6
2006년	0.9(0.3)	2.2(2.1)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3.6)	2.5(3.6)	3.2	8.4	11.2	10.2	5.70	1712.5
2008년	8.6(5.6)	4.7(4.1)	3.2	0.9	14.3	11.9	7.02	1529.5
2007년 7월	1.6(2.2)	2.5(2.3)	3.2(3.4)	9.6	10.9	10.0	5.75	1911.6
8월	0.9(2.1)	2.0(2.4)	3.1(3.2)	8.8	11.4	10.3	5.70	1815.0
9월	1.0(2.6)	2.3(3.0)	3.0(3.2)	12.3	11.0	10.3	5.85	1879.0
10월	2.2(2.8)	3.0(3.2)	3.0(3.1)	-0.6	10.8	10.4	5.98	2004.6
11월	3.1(3.2)	3.5(3.2)	3.0(3.2)	5.9	11.3	10.4	6.16	1924.8
12월	3.6(3.6)	3.6(3.6)	3.1(3.1)	6.7	11.5	10.6	6.73	1903.6
2008년 1월	4.2(0.6)	3.9(0.5)	3.3(3.0)		12.5	11.4	6.64	1732.3
2월	5.1(1.5)	3.6(0.8)	3.5(3.1)		13.4	11.6	6.27	1689.5
3월	6.0(2.9)	3.9(1.8)	3.4(3.1)		13.9	11.9	6.13	1651.2
4월	7.6(5.1)	4.1(2.4)	3.2(3.2)		14.9	12.7	5.91	1776.6
5월	9.0(7.1)	4.9(3.2)	3.0(3.2)		15.8	13.1	6.22	1846.8
6월	10.5(8.8)	5.5(3.9)	3.1(3.2)		15.1	12.7	6.68	1858.2
7월	12.5(11.0)	5.9(4.6)	3.1(3.2)		14.8	12.1	6.99	1569.6
8월	12.3(10.7)	5.6(4.4)	3.1(3.2)		14.7	11.8	7.11	1537.5
9월	11.3(10.3)	5.1(4.5)	3.0(3.2)		14.5	12.2	7.46	1446.6
10월	10.7(9.9)	4.8(4.4)	3.0(3.1)		14.2	11.9	7.95	1201.7
11월	7.8(7.4)	4.5(4.1)	3.1(3.2)		14.0	11.4	8.85	1074.0
12월	5.6(5.6)	4.1(4.1)	3.3(3.3)		13.1	10.4	8.35	1114.9
2009년 1월	4.7(-0.3)	3.7(0.1)	3.6(3.3)		12.0	9.2	7.34	1156.4
2월	4.4(0.4)	4.1(0.8)	3.9(3.5)		11.4	8.8	7.07	1139.8
3월	3.5(0.8)	3.9(1.5)	4.0(3.7)		11.1	8.4	6.14	1140.5
4월	1.5(1.0)	3.6(1.8)	3.8(3.7)		10.6	7.7	5.68	1322.1
5월	-1.3(0.2)	2.7(1.8)	3.8(3.9)		9.9	7.3	5.16	1400.5
6월	-3.1(-0.1)	2.0(1.7)	3.9(4.0)		9.6	7.0	5.21	1395.2
7월	-3.8(1.1)	1.6(2.1)	3.7(3.8)		9.7	7.7	5.46	1460.0
8월	-3.0(1.6)	2.2(2.4)	3.7(3.8)		10.0	8.0	5.74	1577.9
9월	-2.6(1.7)	2.2(2.5)	3.4(3.6)		10.0	7.7	5.58	1659.5
10월	-3.1(0.9)	2.0(2.3)	3.2(3.4)		10.5		5.60	1630.6
11월	-0.4(1.3)	2.4(2.4)					5.43	1583.5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 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 대비(%)	
								공공	민간
2004년	10.3	80.1	1.1	6.3	3.6	-3.9	11.1	4.9	14.8
2005년	6.4	79.7	4.2	-2.8	5.9	7.3	4.1	-3.7	7.5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1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0	77.2	1.0	-12.8	-4.3	-9.0	4.7	6.5	1.7
2007년 7월	13.6	80.6	8.9	36.7	6.6	-13.2	13.2	14.9	10.7
8월	9.0	81.1	5.8	0.4	2.9	15.6	8.5	5.0	8.4
9월	-3.0	78.6	6.6	25.1	-2.8	-9.3	-6.2	-7.3	-6.2
10월	16.1	81.9	6.9	47.8	7.5	104.6	8.8	-4.6	13.3
11월	7.7	81.0	4.7	58.2	8.5	48.7	5.9	8.8	3.0
12월	9.4	80.9	0.8	30.7	10.3	4.3	9.1	3.8	10.0
2008년 1월	11.7	81.3	5.2	55.2	-2.2	-9.3	10.5	16.5	5.6
2월	10.7	80.2	3.5	4.2	-8.0	-7.0	3.1	-1.0	2.6
3월	10.5	80.9	4.5	19.9	-1.5	3.6	3.6	5.5	1.0
4월	10.8	81.0	6	7.5	-4.2	-0.5	4.2	2.4	2.6
5월	8.9	80.0	3.1	-2.6	-1.1	16.4	7.5	5.0	5.9
6월	7.0	80.2	-0.7	4.2	-2.7	-23.0	6.6	3.1	5.3
7월	8.6	79.2	4.1	22.6	7.0	-13.2	8.7	3.2	9.2
8월	1.8	78.4	2.2	-4.8	-0.9	-8.1	8.3	9.5	5.9
9월	6.3	77.3	-1.9	-44	2.9	-39.8	14.8	6.9	16.7
10월	-1.9	77.3	-3.4	-42.6	-6.2	-23.7	5.1	20.4	-3.3
11월	-13.8	68.4	-4.7	-50	-14.9	-39.3	-1.3	5.7	-7.1
12월	-18.7	62.3	-4.5	-41.6	-18.4	30.7	-8.6	3.4	-16.2
2009년 1월	-25.5	61.4	-3.3	-43.1	-21.4	-15.0	-0.4	25.2	-11.4
2월	-10.0	66.9	-6.1	-22	-11.3	-20.7	12	34	2.3
3월	-10.5	69.2	-5.2	-17.9	-19.9	-14.7	3	16.5	-5.1
4월	-8.2	71.5	-3.9	-23.2	-18.9	-8.0	6	34.3	-4.8
5월	-9.0	72.9	1.6	-19.6	-16.2	-18.5	-0.7	17.4	-10.5
6월	-1.1	76.6	7.5	11.6	-4.9	17.9	15.2	44.1	-0.5
7월	0.7	78.7	1.8	21.5	-18.8	2.9	-2.3	17.5	-11.3
8월	1.0	77.7	1.9	-15.2	-15.5	-29.5	-7.9	14.2	-18.6
9월	11.0	80.3	6.6	35.8	5.0	58.4	7.7	32.2	-4.3
10월	0.2	77.3	9.8	-0.9	0.3	27.2	-6.5	2.5	-10.7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9년 12월 18일

1판1쇄 발행/2009년 12월 22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영용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